

사우스케이프cc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는 시점에서 남해 사우스케이프cc는 골프라운딩 예약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협에서 주최한 여행 일정중에 아난티cc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었는데 사우스케이프는 오히려 일정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우리 일행들은 서로 초면이고 각지에서 모여서 한방에 3~4인이 생활하면서 골프를 칠 예정이었습니다 무척 기대했고 가고 싶으나 코로나로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사우스케이프측은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행 일정 중에 숙소나 다른 골프장은 다 취소를 해주었는데 사우스케이프만 취소를 안해줘서 모두가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누군가 코로나 걸려야 하는겁니까?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태에도 숙소이용자들의 안위는 뒤로한채 자신들의 이익만 고집하는 사우스케이프를 고발합니다